



고위공직자 범죄신고
02-6320-0200



제 723 호 (2023년 12월 27일 수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한동훈 “총선 출마 않겠다” 野 숙주 삼은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들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승리를 위한 헌신을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26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선민후사(先民後私)를 실천하겠다”며 “지역구

라야 하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또 총선 공천과 관련해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국민께 헌신할, 신뢰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들을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중대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 받는 걸 막는 게 지상목표인 다수당이 더욱 꽑

용기 내기로 결심해야 한다. 나는 용기 내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향해선 “당 대표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중대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인데도 우리 국민의힘이 암도하지 못하는지 함께 냉정하게 반성하자”며 “국민의힘이 정말 잘해왔고, 잘하는데도 억울하게 뒤지고 있는 거, 그거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무기력 속에 안주하지 말자. 계산하고 몸 사리지 말자.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비판을 하시면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반응하고 바꾸자. 이제 정말 달라질 거라 약속드리고, 바로 바로 보여드리자”고 당의 변화를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총선을 위한 악법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오늘부터는 여당을 이끄는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당과 충분히 논의된 내용에 대해 책임 있게 밝안하고 과감하게 실천할 것”이라고 답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해야만 공천…이재명의 민주당과 달라야”

“다수당이 폭주하며 나라 망치는 것 막아야…무기력에 안주하며 몸 사리지 말자”

‘김여사 특검법’에는 “총선용 악법…당과 대응방안 논의해 책임있게 발언할 것”

예 출마하지 않겠다. 비례대표로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직 동료 시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 용기 있게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 다 하겠지만, 내가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는지는 않겠다”며 “여기 계신 누구보다 도 더 열심히 뛸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은 즉시 출당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

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걸 막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상대로 필승을 강조했다. 또 “그런 당을 숙주 삼아 수십년간 386(과거 ‘3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로 운동권 출신을 가리키던 통칭)이 486, 586, 686이 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소수 여당으로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상대해야 하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이다. 어려운 현실은 우리 모두 공포를 느낄 만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른바 ‘수직적 당정관계’란 지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질문에는 “대통령과 여당과 정부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각자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하는 기관이다. 거기서 수직·수평적 얘기가 나올 게 아니다.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라고 했다.

그는 “누가 누구를 누르고 막고, 이런식의 사극이나 나올 법한 궁중 암투는 이 관계에 끼어들 자리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송진영 기자

이준석 탈당 D-1, 與 주류에선 “자충수”

일각선 “포용해야”…측근 ‘천아용인’ 합류 미지수

한동훈 비대위에 신당 명분·관심 저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비주류 일각에선 당이 ‘중·수·청’(중도층·수도권·청년) 표심을 얻기 위해 이 전 대표를 끌어안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하다.

한 비주류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으로서는 필요한 존재이므로 품어야 한다는 전제에 변함이 없다”며 “지난 대선 때도 다 합쳐서 겨우 0.73%포인트로 이긴 점을 생각해보면 답은 나와 있다”고 포용론을 펼쳤다.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 것’으로 설정하고, 총선 과정에서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벌써 나온다.

하태경 의원은 연합뉴스에 “이준석 신당과 우리 당이 서로 중·수·청의 마음을 얻으려고 혁신적인 노력을 하다 보면 연대할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며 “창당은 막을 수 없겠지만, 선거 연대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환경만 조금 갖춰진다면 얼마든지 이 전 대표와 마주 앉아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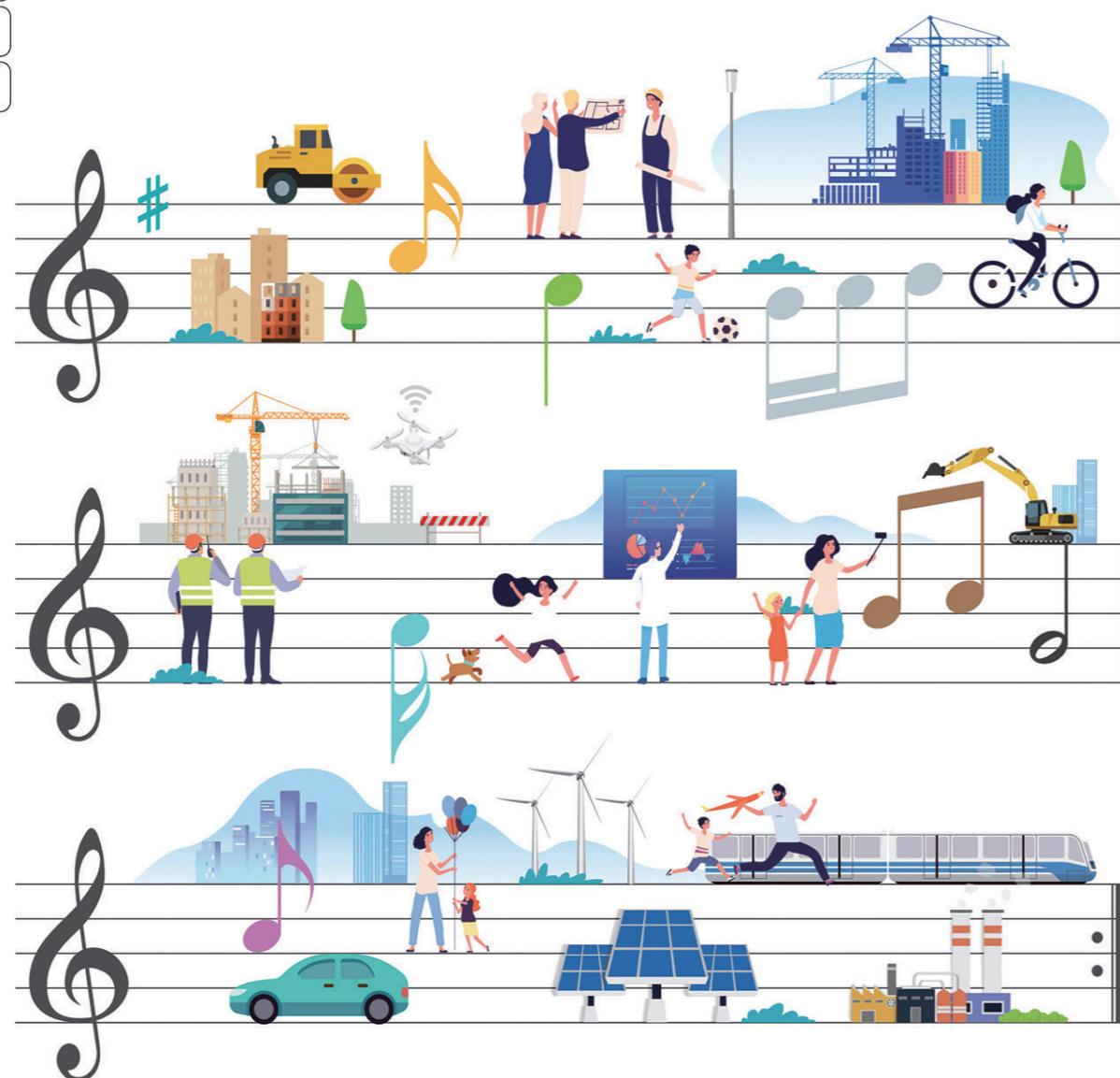
이 전 대표는 당내 무성한 관측에 아랑곳하지 않고 탈당을 결행할 태세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내일 기자회견을 예정대로 진행 한다”고 말했다.

/ 김강우 기자

M Moody's A2

Fitch Ratings A

A.M. Best A+



건설이 만든 금융
www.cgbest.co.kr

건설산업의
내일을 연주합니다

건설을 든든하게 국민을 행복하게
우리가 하는 일은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모든 공간의 완성을 보증하는 일입니다

건설에 가장 어울리는 화음, 건설공제조합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내일을 노래합니다

The Best Guarantee



건설공제조합
Construction Guarantee

尹 “공직자, 현장 수시로 찾아 국민 숨소리 하나 놓치지 말라”

5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공무원상 수여…국무위원 전원 참석



윤석열 대통령, 오혁진 해경 경위에게 옥조근정훈장 친수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공직자들에게 “현장을 수시로 찾아가고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도록 더욱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공직자 모두의 헌신이 곧 국민과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의 처우와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들에게 직접 상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이 직접 공무원상을 시상한 것

은 2018년 이후 5년 만으로, 이날 시상식에는 역대 최초로 국무위원들도 전원 참석해 수상을 축하했다. 올해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상식과 공정·역동적 경제·따뜻한 동행·자율과 장의 등 4개 분야에서 총 55명의 수상자가 선발됐다.

낙농업계와 소통을 통해 원유(原乳)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도입한 농림축산식품부 흥angu 사무관, 830억원 상당의 기술 유출 사법 9명을 검거한 창원 해양경찰서 오혁진 경위, 20년 동안 수난 현장에서 활동해온 한정민 소방경 등이다. 수상자들에게는 특별 승진과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의 인사 특전이 부여된다. / 송원기 기자

김홍일 “권익위원장이든 방통위원장이든 봉사하는 자리”

“가짜뉴스, 언론 위축 없게 오보 제외해야…지상파 재허가 최우선 현안”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6일 “국민권익위원장이든 방송통신위원장이든 동일하게 국가 발전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자료에서 권익위원장 취임 5개월여 만에 방통위원장으로 옮기는 게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법률 전문성과 공직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방통위에 주어진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조직을 원활히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또 방송·통신 분야에 전문성이 없다는 비판에는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조언받고, 내부 전문가인 방통위 상임위원 및 직원들과 논의해 보완하겠다”고 했다.

방통위 최우선 현안으로 김 후보자는 “올해 12월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라고 답변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1인만 있고, 김 후보자가 임명돼도 2인 체제인데, 이 체제에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방통위 설치



최재진에 둘러싸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법에 2인 이상 위원이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 소집이 가능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조속히 5인 체제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김 후보자는 올해 정치권에서 큰 쟁점이 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위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의·의의적으로 왜곡하여 공개적으로 퍼트리는 정보”라고 정의하면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언론의 비판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자·오보·사소한 오류 등을 제외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온라인상에서 건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신뢰 자체를 촉진해 나갈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포털 뉴스의 알고리즘 문제에 관해서도 “국민 대다수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상황에서 포털 뉴스 추천 및 배열 등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강현우 기자



목욕탕 여탕 내 갑전 사고로 사망자 3명이 발생한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목욕탕 입구에서 24일 오후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합동감식반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욕탕서 3명 감전사’ 세종시 목욕탕 누전 여부 등 감식

입욕객 3명이 감전돼 숨진 세종시 조치원읍 한 목욕탕에서 26일 2차 합동 감식이 진행됐다.

세종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 등 합동감식반 2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목욕탕 2차 감식에 들어갔다.

박충서 세종북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날 감식에 앞서 “탕 내에 있는 전기

이와 관련,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탕이나 목조 내 방수가 안 될 경우 물이 콘크리트 밑으로 들어간다”며 “목욕 설비나 전선 노후화로 피복이 벗겨진 전선에 닿을 경우 감전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건물은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39년 전인 1984년 12월 사용승인됐다.

2차 합동 감식서 전기 시설 연결하는 지하 배전반 위주 조사

전문가 “욕탕 누수로 인한 감전 가능성 있어”

시설과 한증막으로 가는 지하 배전반 위주로 좀 세밀하게 살펴보겠다”며 “지하 배전반을 조사한 후에는 욕탕 내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자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 부검도 오늘 진행한다”며 “그 결과와 1·2차 합동 점검 결과를 종합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온탕 안으로 전기가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누전 원인을 밝히기 위한 배전함 등 전기공급시설을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사고 당일인 지난 24일 진행한 1차 합동 감식 결과 전선 단락 흔적 등을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감식에서는 목욕탕 일부를 해체해 설비를 확인하는 한편, 탕 내 기포 발생기 등 전선 누전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 곽도현 기자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함께 약속하고 함께 지킵니다

월급 **2,060,740원**
(주40시간 근무시)

고용노동부

野 “한동훈 ‘민심법정’에…아바타 가능 무대”…반사이익론 경계도

‘김건희 특검’ 수용 압박…“韓 말한 대로 범죄 있으면 수사하는 게 국민 상식”



더불어민주당 흥의표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임명이 확실시되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향후 혁신을 이끌 가능성을 평가 절하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수용이 한 지명자의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 여부를 가늠할 시험 무대가 될 것이라며 여권의 특검 수용도 거듭 압박했다.

정철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혁신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인데 혁신할 수 있

겠나, ‘김건희 특검’을 수용할 수 있겠나, 검사 공천을 배제할 수 있겠나”라며 “한동훈 비대위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적었다.

박주민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분은 법무부 장관일 때도 그냥 어떤 공직자로서의 공명정대함이나 중립성이 아니라 한쪽을 강하게 편드는 편향성을 보여줬다”며 “이제 정치인이 되셨으니 더 편향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주

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는 목소리들도 터져 나왔다.

홍의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전 장관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비대위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한전 장관이 늘 검사 시절, 법무부 장관 시절 말한 대로 범죄가 있고 그 범죄에 대한 행위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국민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장경태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그동안 한 전 장관은 검사로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만 법정에 섰겠지만, 이제는 건전이 ‘민심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이야기가 그가 ‘윤석열 아바타’인지 아닌지 가늠할 가장 첫 실험대이다 중요한 실험대”라고 지적했다.

다면 당내 일각에서 나왔던 반사이익론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민주당 자체 혁신을 토대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팽구라는 우리 안의 생각은 완전히 버려야 한다”며 “민주당 내 다양한 세력을 멋지게 통합하는 실력을, 민생 혁신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혁신을 통한 새로운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썼다.

장 의원은 라디오에서 “등판 전에는 ‘울테면 오라’는 메시지로서 팽구지만, 등판 후에는 총력전”이라며 “등판 후에 방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도 “민주당이 조금 더 경계해야 한다”며 “국회 운영위원회 정상화,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 수용 등 한 전 장관이 해야 할 숙제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 서정수 기자

강정애 보훈장관 “국가유공자 보상·지원의 질 대폭 개선하겠다”

강정애 신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해 국가의 영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보훈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백년대계”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보훈이 과거의 희생과 현

신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신적 근간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견인하는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버지는 6·25전쟁에 참전해 무공훈장을 받으셨고, 시댁은 독립운동에 헌신한 집안”이라며 “제가 보훈부 장관으



로 임명된 것은 보훈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훈 가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행정을 펼치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합리화해 보상과 지원의 질을 대폭 개선하겠다”며 “유공자의 혁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보훈병원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복 근무자를 존중하는 보훈문화를 확산하며, 모든 국민이 평소 자연스럽게 보훈 문화를 접해 보훈에 대한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민석호 기자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인 개인 정보 유출은 범죄…검찰 수사의뢰”



등이 불법 유출 정보를 취재 명분으로 활용한 것은 이해충돌 시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도 변호사를 공동 선임해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 위원장은 아울러 당시 뉴스타파 관련 보도에 대한 민원은 180여 건이나 접수됐으며, 또한 뉴스타파 관련 심의는 민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취임하기 전 황성우 위원장 대행의 단독 부의원 행사에 따라 이미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것이라 민원 제기와는 무관했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로 고통을 겪은 민원인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도 이번 사안과 관련,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성명불상의 방심위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서를 접수하는 모양새를 취했다고 해서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정보를 유출했다는 범죄 혐의가 소멸할 수는 없고 해당 정보는 방심위 직원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자료”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방심위 직원은 형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이 적용된다.

/ 채경환 기자

도내·마경 특별시장

‘고립 위기가구 징후’

- ☒ 광고지와 우편물이 쌓여있어요
- ☒ 관리비가 3개월 이상 체납되고 단전 등 안내문이 붙어있어요
- ☒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녀요
- ☒ 배달음료가 며칠째 놓여있어요
- ☒ 집에서 악취가 나요
- ☒ 집 앞에 슬병이 많이 보여요

- | | |
|--------|--------------------------|
| 의원·약국 | 지병으로 약을 처방받던 분이 오시지 않아요. |
| 슈퍼·편의점 |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술을 자주 사가요. |
| 방문인력 | 건강이상, 생활고 등이 보여요. |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보이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알려주세요!!**



신고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해주세요

종로구	02-2148-1121	동대문구	02-2127-5001	노원구	02-2116-3291	강서구	02-2600-1120	관악구	02-879-5889
중구	02-3395-1004	중랑구	02-2094-1615	은평구	02-351-8888	구로구	02-860-3098	서초구	02-2155-8339
용산구	02-2199-7088	성북구	02-1577-3178	서대문구	02-330-1004	금천구	02-2627-1004	강남구	02-3423-6029
성동구	02-2286-7942	강북구	02-901-7300	마포구	02-3153-6267	영등포구	02-2670-3964	송파구	02-2147-2722
광진구	02-450-1140	도봉구	02-2191-4379	양천구	02-2620-3333	동작구	02-820-1864	강동구	02-3425-5050

여야, 민생법안 협상 또 불발…野 지역의사제법 강행에 與 반발

與 “2+2 협의체 형해화”, 野 “협의체가 법안처리 장애물돼선 안 돼”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여야 2+2 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여야의 쟁점 민생법안 논의 기구인 ‘2+2 협의체’가 26일 일주일 만에 다시 협상에 나섰지만, 별다른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원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원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민생법안 신속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회의 시간은 25분에 그쳤다.

양당은 회의 시작 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 지역의 책임을 상대에게 넘기며 기싸움을 벌였다.

국민의힘 유 정책위원장은 “지난 19일 회의에서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했는데 바로 다음 날 민주당은 2+2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가져온 법안들을 일방통행식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이런 과정이 반복될수록 2+2 협의체의 존재 자체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수석은 “2+2에서 협상하고 각각 10개의 의제를 가져다 놨는데 각 상임위에선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하는 것이 과연 협의 정신에 맞느냐”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오늘 2+2회의를 마지막으로

신원식, 부활한 천안함 찾아 “적 도발시 수장시켜 복수하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6일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를 방문해 13년 만에 부활한 천안함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신 장관은 천안함 생존장병들과 함께 46용사 추모비를 참배한 뒤 “산화한 46위 영웅들과 생존 장병들은 진정한 승리자였다”며 “2함대의 역사는 서해를 굳건히 지켜온 승리의 역사”라고 말했다.

이어 “서해 수호자로 돌아온 천안함은 이순신 함대 거북선과 같이 우리 군

의 선봉장으로서, 적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가차 없이 수장해 선우들의 원한을 복수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새롭게 배치된 천안함에 대해 “대잠능력 등 이전보다 훨씬 보강된 첨단전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적이 도발하면 다시는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즉·강·깥’(즉시,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응징해 적이 향후 수년간 완전히 전투능력을 상실하도록 초토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조영민 기자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압수수색…‘尹 명예훼손’ 혐의 입건

이강길 발언 취지 왜곡해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 제기 정황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를 압수수색했다.

뉴스버스의 전직 기자를 압수수색한 지 두 달만으로, 매체 대표로까지 수사가 확대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사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부장)은 이날 오전 이 대표의 서울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됐다.

뉴스버스는 2021년 10월21일 기사에서 국민의힘 유력 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형 씨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 수사 기록에 나오는 조씨의 진술과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강길 씨와의 인터뷰 내용 등을 근거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조씨와 주변 계좌주적까지 벌여놓고 입건하지도 않았다는 게 기사의 주요 내용이었다.

뉴스버스는 당시 기사에 ‘조씨의 알선으로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던 당시 씨세븐 대표 이강길 씨는 최



근 뉴스버스 기자와 만나 “그때 대검 중수부에 간 일이 있는데, 조씨에게 10억3천만원을 건넨 사실을 대검 중수부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실제 발언과 다르게 보도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버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10월26일 해당 기사를 작성한 뉴스버스의 전직 기자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시작됐다.

검찰은 뉴스버스가 뉴스타파, JTBC, 리포액트, 경향신

문과 마찬가지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의혹 공세 방향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서 윤 대통령으로 돌리려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보도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에 대응하기 위한 민주당 내 조직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뉴스버스는 허위 보도를 하지 않았다면 ‘언론 탄압’이라는 입장이다. 뉴스버스는 지난 10월 전직 기자 압수수색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보도는 기록에 근거한 팩트 취재에 이씨 인터뷰 내용이 보완하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며 “특정 후보를 겨냥한 여론 조작 보도가 아닌 대선 후보 검증 보도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뉴스버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들은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들을 겨냥한 ‘언론탄압’의 연장선”이라며 “윤 대통령 등이 배후로 의심받았던 고발사주 보도 및 현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해온 뉴스버스에 재갈을 물리고 흡집을 내보려는 시도로 의심된다”고 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보도 경위, 배후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 배영준 기자

16억원 사기 혐의 공개수배 전청조 부친, 전창수, 전남서 붙잡혀

사기 혐의로 공개수배된 전청조 씨의 부친 전창수(60) 씨가 전남 보성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보성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보성군 별교읍 한 편의점 앞 거리에서 수배 중인 전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3시 20분께 별교읍에서 발생한 인력중개사무실 침입 및 휴대전화 절도 사건의 용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씨를 붙잡았다.

전씨는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 신원을 숨겼고, 경찰은 지문 대조를 통해 그의 신원을 확인했다.

전씨는 16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천안서북경찰서에 의해 공개수배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2월 천안 지역에서 부동산을 구입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13억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전청조의 아버지 전창수

전씨는 지인들에게 3억원을 빌린 뒤 잠적하는 등 총 16억1천만원 상당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뒤 도피 행각을 이어갔다.

전천서북경찰서는 조만간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전씨와 별개로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논란을 일으킨 그의 딸 전청조(27)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 권도훈 기자

이선균 혐박해 5천만원 뜯은 공갈범, 구속심사 불출석

마야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20대 여성(여성)이 26일 열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로부터 어떤 연락

도 받지 못해 아직 불출석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의 소재를 확인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초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밝혔으나 1시간이 지난 오후 3시 30분까지도 법원에 오지 않았다.

A씨는 경찰이나 법원에 별도의 불출석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법은 이날 A씨가 불출석하자 오는 29일까지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라고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A씨의 불출석 사유를 확인한 뒤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발부된 구인장을 집행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

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신청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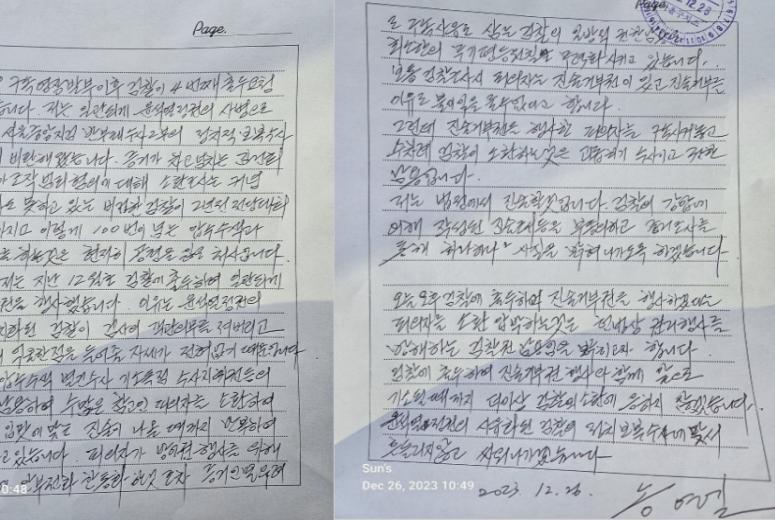
경찰 관계자는 “A씨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해 아직 불출석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의 소재를 확인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마야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씨를 협박해 5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천만원을 뜯겼다”며 A씨와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앞서 이씨는 지인에게 부탁해 급히 현금을 마련한 뒤 B씨에게 3억원을, A씨에게 5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나와 이씨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그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 박민수 기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자필 입장문

송영길 “검찰 수차례 소환은 ‘괴롭히기’…법정에서 진술할 것”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60) 전 대표는 26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구속해 놓고 수차례 검찰이 소환하는 것은 괴롭히기 수사이고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작성해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오늘 오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에 검찰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송 전 대표에게 통보했으나 송 전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0~22일에도 사흘 연속

자필입장문 공개…“오후 출석해 진술거부권 행사, 앞으로 소환 불용”

검찰, 구속 후 아직 한 차례도 조사 못 해…구속기간 연장 신청

후) 검찰에 출두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앞으로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달 초) 검찰 조사 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윤석열 정권의 일부 정치화된 검찰이 검사의 의무를 저버리고 피의자의 충돌을 조장해 사건의 진상화를 막기 위함”이라며 “(이번에) 출석해 진술거부권 행사할 경우에도 진술 거부권 행사에 대한 조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범죄 혐의에 대해 소환 조사는커녕 서면 조사도 못하고 있는 비겁한 검찰이 2년 전 전당대회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100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은 현저히 공평을 잃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송 전 대표는 “저는 법정에서 진술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사유화된 검찰의 정치 보복 수사에 맞서 흔들리지 않고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검찰에

표는 변호인 접견이 필요하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응하지 않았다.

지난 18일 구속 이후 한 차례도 조사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검찰이 강제 구인까지 검토했으나 일단 송 전 대표가 이날 오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다만 그가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길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 기한은 오는 27일까지인데,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 절차를 밟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 구속 시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며, 10일 한도 내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검찰 신청을 받아들이면 내달 6일까지 구속 기간이 늘어난다.

/ 신승진 기자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뺏아먹는 기생증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

가자지구 찾은 네타냐후 “긴싸움” 천명…美매체엔 평화조건 제시

WSJ 기고문에서 “하마스 파괴·가자 비무장화·급진주의 포기 선행돼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5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긴 싸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이터와 미국 CNN방송 등의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가자지구 북부의 이스라엘군을 방문해 “누가 논하는 상관없이 종전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엑스(X·엣 트위터)에 가자지구의 장병들과 만나는 모습 사진을 올리고 “가자지구의 영웅들에게 우리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하마스가 끌장날 때까지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한 소속 정당인 리쿠드당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는 이번 전쟁이 “긴 싸움이 될 것이며, 종전에 가까워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는 가자지구 평화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파괴와 가자지구 비무장화, 급진주의 포기 등 3개 항목을 제시했다.



가자지구 방문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총리는 기고문에서 가자지구 평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첫째로, 이란의 대리인인 하마스는 파괴돼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국제법을 완전히 준수하는 행동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는 특히 도전적인 과제인데 그 이유는 하마스가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팔레스타인 민간인 희생의 책임을 하마스 측에 돌렸다.

이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전단을

뿌리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위험에서 벗어나라고 경고하는 등 민간인 사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상자와 관련해 이스라엘을 부당하게 비난하는 것은 하마스와 전 세계의 다른 테러 조직이 인간 방패를 사용하도록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어 “가자지구는 비무장화돼야 한다”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자지구를 비무장화할 것이라

는 기대는 몽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동안 가자지구 내 안보 통제권을 이스라엘이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가자지구는 급진주의 포기가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는 아이들에게 죽음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쳐야 하고, 성직자는 유대인 살해 설교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 같은 기고 내용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가자지구 통치권을 넘기지 않고 전후에도 가자지구에 군을 주둔시키겠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기존 입장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달리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점령 불가를 골자로 한 이른바 ‘가자 4원칙’을 선언, 이스라엘이 넘어선 안 될 ‘레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국제사회 역시 팔레스타인 문제의 장기적인 해법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2개의 독립국가를 인정하는 ‘2국가 해법’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공식화하고 있다.

/ 백도영 기자



교실에서 공부하는 아프간 여학생들

“이제 학교에 못가”…아프간 6학년

여학생들 눈물의 졸업

“졸업은 원래 우리가 7학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반 친구들은 모두 졸업했고 매우 실망했어요.”

이달 11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한 초등학교에서 마지막 수업을 들은 여학생 바하라 루스탄(13)의 목소리는 슬프게 가리앉았다.

25일 AP 통신에 따르면, 루스탄은 탈레반의 여성 교육 제한 조치에 따라 중학교 등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다. 루스탄은 여학생에게는 졸업식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탈레반 방침으로 인해 이렇다 할 기념행사도 없이 학교생활을 마쳤다.

하지만 그는 공부 의지가 강해 집에서 교과서를 열심히 읽고 있다. 2021년 미군의 철수 이후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은 여성 교육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탈레반은 재집권 초기에 여성과 소수자들의 권리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점차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하면서 여성의 권리가 급속도로 약화됐다.

특히 여성에게는 초등학교 6년 이후의 교육을 금지,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등 고등교육 접근권을 박탈했다.

또 공공부문을 포함한 대부분의 일자리에서 여성의 취업을 제한해 많은 여성 이 일자리를 잃었다.

카불의 또 다른 여학생 세타예쉬 사해브즈(13)는 꿈을 이루고 싶지만 더 이상 배울 수가 없어 슬프다고 말했다.

그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이제 공부도 할 수 없고, 학교에도 못 간다”며 깊은 실망감을 표했다.

로자 오투나바에바 유엔 아프가니스탄 지원단장은 탈레반 정책으로 아프간 여성들이 여려 방면에서 나날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프간 교육부가 최근 남학생만 다니는 종교학교 마드리사에서 전연령의 여성이 공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현대 교육과목을 포함하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 신민경 기자

멜라니아 잠행 미스터리…대선 앞두고 두문불출에 궁금증 증폭

트럼프 선거운동·재판 등에 모습 나타내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아 한종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올해 초 아이오와주에서는 멜라니아의 사진과 ‘실종’, ‘이 여성은 본 적이 있느냐’는 문구, 마리라고의 경비실 전화번호가 실린 실종자 전단이 나돌기도 했다.

멜라니아가 이처럼 잠행을 계속하면서 남편의 선거 운동에서 멜라니아가 어떤 역할을 할지,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될 경우 어떤 영부인이 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아이오와주에서 한 연설에서 자신이 유세 무대에서 춤을 추거나 하면 멜라니아가 “그건 대통령답지 않다”고 만류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팜비치의 주변 인사들은 멜라니아가 자기 가족, 특히 유일한 친지인 17살 막내 아들 배런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뽑히면 성인이 되는 배런의 백악관 생활이 언론의 주목을 훨씬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머는 “멜라니아는 마리라고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곳에서 이상하고 고립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멜라니아는 계다가 남편의 선거운동이

러라고 내 미용실 등지에서 마리라고 회원들의 눈에 자주 띠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요새는 트럼프 가족이 사는 곳이 마리라고의 메인 허우에 옆에 있는 데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마리라고 회원들은 전했다.

리머는 “멜라니아는 마리라고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곳에서 이상하고 고립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멜라니아는 계다가 남편의 선거운동이

나 각종 재판 등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

아이지리아 또 유목민·농민 유혈충돌…최소 160명 사망

나이지리아 중부 지방에서 무장단체의 민간인 공격으로 최소 160명이 숨졌다. 지난 5월 100여명이 숨진 후 최악의 유혈사태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유목민과 농민 부족 간 민족·종교 갈등으로 몇 년째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AF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중부 플라토주에서 주말 새 무장 단체들의 연쇄 공격이 발생, 최소 160명이 숨지고 300여명이 부상했다고 지방 정부가 밝혔다. 사망자는 전날 밤만 해도 17명으로 집계됐지만, 이후 급격히 불었다.

플라토주 지방정부 의장대행 만데이 카사는 AFP에 “(무장 단체의) 공격이 23일 밤부터 25일 새벽까지 계속되면서 113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무장 단체들이 최소 20개 마을을 덮쳤으며, 조직화된 공격이었다고 전했다.

현지 적십자는 플라토주 보코수 지역 18개 마을에서 104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격은 보코수 지역에서 시작해 바르킨 라디 지역으로 번졌으며, 25일 오후에도 총성이 계속해서 들렸다고 AFP는 전했다.

캘레브 무트프왕 플라토 주지사는 이번 공격에 대해 “야만적이고 잔인하며 정당치 못하다”고 비난했다.

플라토주는 “무고한 민간인을 향한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플라토주 의회 딘슨 출룸 의장도 “우리는 죽음의 상인들의 계략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의와 지속적인 평화 추구를 위해 단결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엑스(엣 트위터)에 “나이지리아 당국은 플라토주의 농촌 지역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치명적인 공격을 끝내지 못했다”며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사건이 발생한 플라토주는 중부에 있는 고원지대로, 나이지리아에서 민족, 종교적 구성이 다양해 ‘미들 벨트’(middle-belt)로 불리는 지역이다.

생계 기반인 목초지와 농지를 둘러싸고 유목 민족과 농민 부족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유목 민족은 대부분은 이슬람교, 농민 부족은 기독교인 토에 종교와 인종, 정치적 문제까지 얹혔다. 여기에 급속한 인구 증가와 기후 악화로 천연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폭력 사태가 멈추지 않고 있다.

나이지리아 서북부와 중부에서는 ‘반디트’라 불리는 현지 무장단체가 마을을 급습, 약탈하고 주민들을 무자위 납치하고 있다.

/ 김희성 기자

**함께 크는 기술
함께 만드는 미래**

SK하이닉스는 첨단 기술로
함께 성장하며 더 멀리 나아갑니다.

협력사 인재채용 및 미래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프로그램 청년 Hy-Five Hy-Po
반도체 전문 분석 기술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분석측정지원센터
환경 미수에 선제 대응하는 반도체 기업 연합 ECO Alliance

We Do Technology | SK hynix

E 이로운
S 세상을
G 그리다

BNK금융그룹은 ESG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다음 세상을 그려가겠습니다!



우리도 항공엔진 만든다…방사청 “2030년대 중후반 개발 완료”



첨단 항공 엔진 관람하는 윤석열 대통령

방위사업청은 항공무기체계 기술 자립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개념연구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첨단 항공엔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한 12대 국가전략기술과 국방부가 선정한 10대 국방전략기술에 모두 포함된다.

항공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은 합될 만큼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기술이다. 방사청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국산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는 1만5천lbf급 터보팬 엔진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lbf는 엔진 출력의 단위로 1만lbf 이상은 상황에서 독자 항공엔진 개발의 필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무인 항공기 엔진과 핵심부품을 해외

1만5천lbf급 엔진 개발해 국산전투기에 장착 목표

미국과 영국 등 일부 선진국만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선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중심으로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소재, 공정 및 부품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민간 업체는 면허생산 등으로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 일부 부품의 제작 및 조립 기술은 가지고 있으나, 독자적으로 항공엔진을 설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항공엔진 개발에는 막대한 예산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청은 “미래 전장이 항공 및 우주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방위산업이 또 하나의 미래 머거리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 항공엔진 개발의 필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무인 항공기 엔진과 핵심부품을 해외

제조사에 의존할 경우 독자적인 성능 개량이 어려우며 앞으로 개발할 항공무기체계의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특히, 무인기용 엔진의 경우 다자 및 양자 수출통제가 적용되므로 수출에 대한 제약이 더 커지게 된다”며 항공엔진 개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선 ‘첨단 항공엔진 개념연구 계획 발표 및 항공엔진 관련 기업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공군 및 산업부 관계자와 20개内外의 유관 기업이 참여했다.

항공엔진 관련 기업들은 우리나라 항공엔진 산업의 기술 수준이 부족함을 공감함과 동시에 전문 인력 및 인프라 부족 등을 극복하려면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 박현준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 시작과 관련한 브리핑에 입양 대상견인 호야(비글)와 마루(잉글리쉬 스프링어 스파니엘)를 데리고 참석해 있다.

“검역탐지견의 가족을 찾습니다”

검역본부, 민간입양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검역탐지견에게 새 가족을 찾아주는 ‘2024년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탐지견이 은퇴 시기(만 8

세)가 됐거나 능력 저하, 훈련 탈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민간 입양을 통해 일반 가정에 보내왔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새 가족을 찾은 검역탐지견은 모두 13마리다.

3년간 입양률은 43.3%이고, 입양이 안 된 검역견은 모두 검역본부가 길러왔다. 검역본부는 내년부터는 민간 입양을 연 4회 분기별로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 입양 대상 탐지견은 은퇴 견 9마리와 훈련 탈락견 2마리 등 모두 11마리다. 견종은 비글 5마리, 스파니엘 4마리, 리트리버 2마리이고 연령은 1~12살이다.

1분기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은 내년 1월 1~31일 신청하면 된다.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단체 등과 함께 2~3월 서류·현장 심사를 통해 입양자를 선정한다.

입양 희망자의 주거지에 탐지견을 기를 공간이 있는지, 또 주거지 인근에 산책 공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식이다.

검역견 입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주원철 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은 “검역탐지견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입양 가족과 지속 소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역탐지견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남희정 기자

메타버스에서도 사생활 침해 안 돼 ‘메타버스 실천윤리’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확정해 발표했다.

실천윤리는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공급·이용·창작자와 이해관계자들이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적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분된 가이드라인이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메타버스 윤리 원칙의 8대 실천 원칙(진정성, 자율성, 험

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을 구체화해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행동 준칙으로서 마련됐다.

먼저 공급 주체용 윤리 조항은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적 방안과 제도 등 환경 조성, 정보 제공, 교육, 문제 예방과 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창작 주체용 윤리 조항은 창작물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해하고 메타버스

창작 윤리를 준수하며, 자기 창작물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용 주체용 윤리 조항은 메타버스 규범을 준수하고 공급자, 창작자, 다른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며 건강한 메타버스 시민으로서 행동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실천윤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본조항별 해설서, 사례집, 주체별 영상 강의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아이돌의 메타버스 공연을 즐기던 여성이 뒤에 바짝 붙어 불쾌하게 춤추는 낯선 남성 아바타를 신고하고 되

장 조치하는 사이 공연이 끝나버리는 경험을 하는 경우에 대해 “공공장소에서는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적 공간을 존중해 주변 사람들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사례집은 명시했다.

이러한 지침을 실천하지 않고 주변에 불편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시민정신을 발휘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례집은 메타버스 공급 주체도 “메타버스를 오남용하지 못하고 이용자 스스로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흥명섭 기자

SAMS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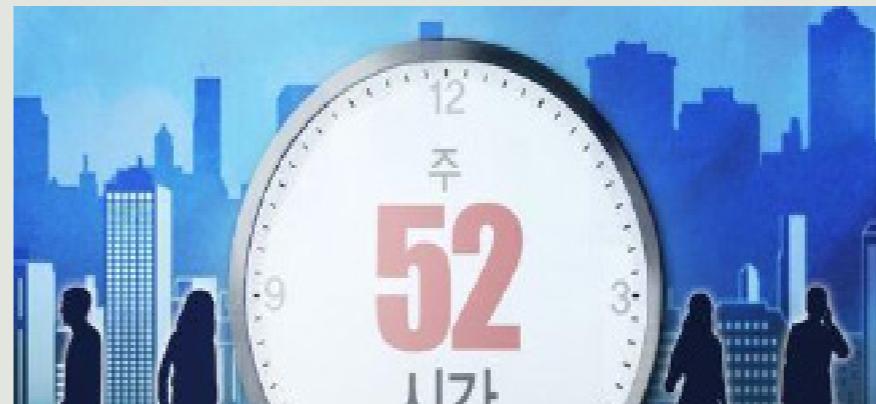
“다시 찾아온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전국이 비스포크 큐브 에어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Ai로 실내 공기질까지 학습해 똑똑하게 관리해주는
BESPOKE 큐브™ Air

가전을 나답게.

‘연장근로 주단위 계산’…정부 공감하지만, 노동계는 강력 반발



주 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준수 여부를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놓고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고민의 산물이라며 공감을 나타냈지만,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 흐름에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판결로 판단한다”

며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간 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한주에 일한 시간이 52시간을 넘는지와, 하루 8시간을 초

과제를 도입한 사업장처럼 근로기준법상 ‘11시간 연속 휴식’이 보장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론적으로 이를 연속 법정휴게시간(4시간마다 30분씩)을 뻬 21.5시간씩 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그동안 현장에 자리 잡은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과 배치되는 것으로 시대착오적”이라며 “국회는 연장근로에 대한 현장 혼란을 막고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연장근로 한도와 연장근로수당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이번 판결에서도) 하루 8시간을 넘긴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부 “경직된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고민 결과…조만간 적용” 노동계 “밤샘근무 가능…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 흐름 역행”

를에 역행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대법원은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 판정 시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닌, 1주간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참고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됐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이라며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인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고민한 것으로 이해하며, 이를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과해 일한 시간을 합하면 12시간을 초과하는지를 모두 고려해왔다.

예를 들어 한주에 사흘 동안 하루 15시간씩 일한 노동자의 경우 주 근로시간이 45시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하루 8시간 넘게 노동한 시간을

민주노총도 논평에서 “육체적 한계를 넘는 노동을 금지하려 일 단위로 법정근로시간을 정한 법 취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라며 “일주일 총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하루 15시간씩 사흘을 몰아 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명문에만 집중해 현실을 무시한 판단을 함으로써 노동자 건강권과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물꼬를 터졌다”라며 일일 연장근로시간 상한을 규정하고, 11시간 연속 휴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 최경수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남궁돈 만두명장 since.1988



“진짜 하나뿐인 내 편 맞네!”

소상공인과 함께 올고 옷으며
늘 곁에 있는 **하나금융그룹**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목2동 ‘남궁돈 만두명장’ 남궁돈 사장님

소상공인의 하나뿐인 내 편

경제적 안정을 위한
금융비용 절감 지원

실패 없는 도전을 위한
청년 창업 컨설팅 지원

지역과 상생을 위한
지역 상권 살리기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한류신문-검찰연합일보-사랑&희망나눔운동본부 ‘2023 세계한류문화공헌대상 시장식’ 성료

평소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세계한류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2023 세계한류문화공헌대상’ 시장식이 12월 22일(금) 오후3시 종로YMCA 대강당(2층)에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세상의 어느 구석까지 한류의 꿈은 흐른다’라는 주제로 ‘2023 세계한류문화공헌대상’ 시장식이 12월 22일(금) 오후3시 종로YMCA 대강당(2층)에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세계한류문화공헌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류신문, 검찰연합신문, 사랑&희망나눔운동본부가 주관한 시장식에는 한옥, 한복, 한글, 한지, 한식, 국악부문을 비롯하여 한류문화의 각 분야에서 부문별 대상을 수상하였다.

정인걸(가수)씨와 강보라(모델겸 가수)씨 그리고 박건(가수)씨의 오프닝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코리아엔젤스민속무용

예술단 문경숙 단장의 화려한 진도북춤 공연이 이어졌다.

이날 대회사를 통해 장학(한류신문, 검찰연합일보 회장) 대회장은 “한류문화는 이제 세계의 문화이며 세계인의 정신”이라고 말하고 “오늘의 주제처럼 세계의 어느 구석까지 한류의 꿈이 흐르도록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하여 한류세계화를 위한 성대한 행사를 준비한 한류신문과 검찰연합일보(회장 장학)과 사랑&희망나눔운동본부(마홍배 총재)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하면서 “한류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적 자부심을 느끼고 대한민국의 글로벌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인찬 총장(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은 환영사를 통하여 “21세기 한류시대를 맞아 오늘날 문화강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 속에서 친연한 문화를 이어 왔기 때문입니다”라며 이번 시장식을 통해 한류의 무한한 가치를 공유하고 후대에 물려줄 문화강국의 귀중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마홍배 사랑&희망나눔운동본부 총재는 “세계 속의 한류를 언론의 힘으로 동행하고 있는 한류신문(회장 장학)은 종이 신문과 인터넷 신문으로 지난 17년간 꾸준히 세계인의 사랑을 담아 구석구석 한류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는 폐회사를 통하여 “한류문화는 바로 그 시작이 우리라는 의미이고 이렇게 함께하게 된 모든 과정”이라며 “2023년 한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자랑스런 수상의 영광이 모두에게 돌아가 새해의 희망이 되기를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오늘의 시장에 대한 심사평에서 심사 위원장 우성봉 위원장은 “세계한류문화 공헌대상 모집이 발표되고 나서 참으로 놀라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공적조서와 신청서를 보내왔다. 엄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위원들과 함께 심사를 하였다고 자부한다.”며 “수상하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이 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께 송구함을 전해드린다”고 밝혔다.

대상 수상이 끝난 후에 한류공로자에 대한 공로패 수상이 이어졌고 많은 축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세계 속의 한류를 언론의 힘으로 동행하고 있는 한류신문(회장 장학)은 종이 신문과 인터넷 신문으로 지난 17년간 꾸준히 세계인의 사랑을 담아 구석구석 한류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2023년이 저물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한해를 정리하는 시장식에서 우리는 다시 한류의 꿈을 세계에 뿌리는 희망을 던져 주고 있다.

/ 송진영 기자

홍준표 시장 “군·민간 공항 통합건설로 신공항사업 앞당겨야”



도축장의 인적 쇄신 등 경영 혁신을 하라고 강조했다.

/ 배승호 기자

서울시, ‘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참여 500가구 모집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핵심 복지정책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돌봄청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500가구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체워주는 소득보장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오 시장의 1호 공약인 ‘취약계층 4대 정책’의 핵심사업이다.

이와 함께 홍 시장은 ‘에어시티’로 조성되는 군부리구에 기업 유치가 용이하도록 원형지 분양을 적극 추진하라고 했다. 원형지는 간선도로 등 기초적인 기반 시설만 갖춘 토지를 말한다.

홍 시장은 내년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출범과 관련해 농수산물도매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군 공항과 민간 공항 통합 건설 방안을 관계 부서에 주문했다.

홍 시장은 이날 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분리 건설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민간 공항에 대한 업무를 대구시가 위임받아 통합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공항건설단에 지시했다.

지방대 위기와 관련해 대학정책국을 신설할 계획도 밝혔다.

구로경찰서, 관내 모든 경로당에 112연결 비상벨 설치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관내 범죄예방 활동 중 신도림동 송학경로당의 양도화(81) 할머니로부터 “경로당과 경찰서가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잇단 흉기 난동으로 노인들의 불안감이 크고 경로당에 젊은 이들이 불쑥 찾아와 물건 강매를 하며 위협하는 일이 종종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구로경찰서는 구청 어르신복지과와 구의회 안전관리 특별위원회와 협력해 9월 해당 경로당을 포함한 2곳에 비상벨을 시범 설치해 운영했다.

이후 노인들의 만족도가 높아 내년 관내 나머지 206개 모든 경로당에 비상벨 설치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재석 구로경찰서장은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노인의 평온한 일상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노건우 기자



서울시 ‘손목닥터9988’ 전용 앱 28일 운영 재개

서울시는 접속지연 문제로 일시 중단

했던 ‘손목닥터 9988’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운영을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재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을 예방한다.

기존 참여자 38만명은 오는 28~31일 연령별로 분산해 등록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연령 구분 없이 등록할 수 있다.

손목닥터9988은 시가 시민의 건강생활 습관 형성과 건강 증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선도적으로 시작한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이다.

내년 1월 8일부터는 장기간 기다려

준 참여자를 대상으로 전용 앱을 활용

한 ‘걷기 기념(포인트) 3배 적립 이벤트’를 개최한다. 적립된 포인트는 서울

페이 머니로 전환해 병원, 약국, 편의점

등 시내 11만여개 매장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해서 앱을 점검할 것”이라며 “앞으로 앱을 운영하면서 걷기 철린지 개최 등 최상의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현욱 기자

**서울시, ‘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참여 500가구 모집**

도축장의 인적 쇄신 등 경영 혁신을 하라고 강조했다.

/ 배승호 기자

**나를 이기고
세계를 이기다**

수십만 번의 리시브와 수백만 번의 스매싱 땀과 투호를 쏟았습니다

삼성생명 선수들이 코트에 새긴 투호의 발자국 대한민국 배드민턴 세계 정상이라는 역사

삼성생명은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좋은 소식의 시작

안세영 · 서승재
2023 세계배드민턴연맹
올해의 선수상 수상

정재숙 · 허광희 · 박경훈 · 최지훈 · 안윤성 · 최평강 · 김병재 · 이소율 · 이연우 · 이유림 · 유서연 · 김유정

자랑스러운 ‘삼성생명 배드민턴단’입니다

금융의 모든 순간 *

* EPISODE 01

모든 것이 돈이 되는 세상

NONGHYUP BANK PRESENTS

금융서비스부터 생활서비스까지
모아주고 아껴주고 쓸수록 돈되는 디지털 뱅킹이니까

금융세상을 키우는 올원적 대답

NH 올원뱅크

조건없이 이체수수료 0원에
다양한 예적금 우대금리까지

현금처럼 사용하는 NH포인트
환율로 돈버는 내맘대로외화BOX

통신비 아껴주는 알뜰폰부터
화딜 등 쇼핑할인까지 다양한 서비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
(1681-3000, 1522-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H농협은행

“시민에 심려끼쳐 죄송”…청주시 눈썰매장 붕괴사고 사과

청주시는 지난 24일 발생한 상당구 지북동 눈썰매장 이동통로 붕괴사고에 대해 공개사과했다.

신현대 부시장은 26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북동 눈썰매장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매우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를 본 분들과 시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 눈썰매장은 민간업체가 청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곳으로 지난 23일 개장한 지 하루 만에 비닐하우스 이동통로가 붕괴되면서 발생했다.

신 부시장은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청주시 기자회견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사고로 다친 시민에 대해 상해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 사고로 다친 시민에 대해 상해

후유장해 심사를 거쳐 시민안전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눈썰매장 운영업체도 보장규모 1인당 최고 1억5천만원인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오후 4시 29분께 슬로프에 뿌리던 인공 눈이 이동통로에 쌓이면서 비닐하우스 지붕이 하중을 이기지 못해 붕괴하면서 발생한 이 사고로 당시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발생 후 설치된 수습대책본부에서 부상 신고를 접수한 결과 8명이 추가로 목, 발목 등의 통증을 호소해 치료를 안내했다고 시 측은 밝혔다.

/ 조규현 기자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60대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50대 A씨가 18일 오후 청주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려 청원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밀린 월세 내려고”

청주 노래방 업주 살해범 구속 송치

청주 청원경찰서는 26일 노래방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 등)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 36분께 청주시 율량동의 4층 노래방에 들어가 업주 B(60대)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여 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가 범행 직전 다른 상가 두 곳에도 들렀다가 손님이 많아 벌길을 돌린 사실을 확인, 이에 대해 강도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데도 잔혹하게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검토했으나, 오랜 은둔생활로 인해 파악할 수 있는 삶의 궤적이 제한적인 데다 형설 수설해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해가 밝자 이를 그대로 들고 인근 우암산으로 가 B씨에게 빼앗은 신용카드 2장과 함께 벌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밀린 월세를 내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불량자인 그는 10여년간 특별한 직업 없이 살았으며, 190만원의 밀린 월

세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에게 빼앗은 현금 50만원은 범행 당일 월세로 냈다.

지난 5년간 월세 등 생활비를 지원해준 동창이 있었으나, 약 10개월 전부터 형편이 악화해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과는 오래전 왕래가 끊겼다.

경찰은 그가 범행 직전 다른 상가 두 곳에도 들렀다가 손님이 많아 벌길을 돌린 사실을 확인, 이에 대해 강도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데도 잔혹하게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검토했으나, 오랜 은둔생활로 인해 파악할 수 있는 삶의 궤적이 제한적인 데다 형설 수설해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별다른 정신질환 이력은 조회되지 않았다.

A씨는 범행 42시간여 만인 지난 16일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 박창수 기자

유와 협박 등)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추후 옥중노트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협박,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진술을 강요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7항에 위반되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청원은 부당한 국기권력으로부터 1년이 넘는 동안 자유를 박탈당한 한 개인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소개정원(더불어민주당 권리옹호위원회) 방식으로 제출된 이날 청원은 향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채택 또는 폐기 결정이 내려진다.

변호인이 재항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은 지난 10월 이후 두 달 넘게 중단된 상태다.

/ 최재원 기자

전북도 “갑질·음주운전 근절합시다” 캠페인



전북도 감사관실은 26일 도청 1층에서 출근길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 및 음주운전 근절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은 연말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과 직장 내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

기 위해 ‘갑질과 음주운전은 공직사회의 암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도지사도 출근길에 ‘갑질·음주운전 절대 하지 않기 다짐 서약’을 한 뒤 ‘직장 내 갑질 타파, 음주운전은 폐가망신’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

김 지사는 “갑질과 음주운전은 타인의 행복과 건강을 송두리째 잊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도청 내 갑질과 음주운전 근절 문화가 정착되도록 캠페인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황순길 기자

이화영 변호인, 법관 기피 신청 이어 수사 검사 탄핵 청원

“季에 허위진술 강요하며 사건 조작” 주장…옥중 노트 일부 공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변호인 이 재판 중인 법관 기피 신청을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26일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현철 법무법인 KNC 변호사와 김광민 변호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 검사들이 피의자 이화영에게 유죄 처벌을 협박하고 그에 대한 선처를 조건으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해 이른바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이에 사건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빌의하고 결의할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탄핵 청원 대상은 당시 수사 검사와

부장검사 등 2명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6월 3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19회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를 제시했다.

당시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019년 7월 29일 아침 10~11시경 (이재명 도지사에게) 제가 보고드렸을 거다”라고 진술했는데, 이 진술 내용이 검사들에게 들었다고 주장하는 발언들이 적혀있다.

김광민 변호사는 이 옥중노트에 대해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틈틈이 작성한 메모를 바탕으로 최근 한두 달 사이 구치소에서 구매한 노트에 회

라는 게 변호인 즉 주장이다.

이들은 “수사 검사가 이화영에게 김성태, 방웅철 및 그들의 변호인과 면담을 주선하고 이들로 하여금 선처를 조건

으로 허유하게 했으며, 검사가 이화영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겁을 주고 이재명 지사만 연결시키면 선처할 수 있다고 직접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이 전 부지사가 구치소에서 작성한 ‘옥중노트’ 일부를 제시했다. 공개된 옥중노트에는 “○○○ 검사,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용을 김성태가 대납해 준 것을 인정해달라” 등이 전 부지사가 검사에게 들었다고 주장하는 발언들이 적혀있다.

김광민 변호사는 이 옥중노트에 대해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틈틈이 작성한 메모를 바탕으로 최근 한두 달 사이 구치소에서 구매한 노트에 회

라는 게 변호인 즉 주장이다.

이들은 “수사 검사가 이화영에게 김

성태, 방웅철 및 그들의 변호인과 면담

을 주선하고 이들로 하여금 선처를 조건



모든 리더,
새로운 경험을 주거나
놀라운 혁신이 되거나
소중한 추억을 주는
모빌리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새로운 경험을 주거나
놀라운 혁신이 되거나
소중한 추억을 주는
모빌리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질 수 있도록

새로운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HYUNDAI
MOTOR GROUP



모든 리더를 스웨칭하고
현대자동차그룹은 미래 비전을 만드는데서

“영천마늘피자 맛보세요” 내년 1월 25일 전국 출시

경북 영천시와 피자알볼로(ALVOLO F&C), 영천 신녕농협은 26일 영천마늘피자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으로 피자알볼로는 신녕농협에서 영천마늘을 납품받아 내년 1월 25일 전국 300여개 매장에서 영천마늘불고기 피자와 영천마늘페퍼oni피자를 출시한다.

앞서 영천시와 영천마늘농촌융복합사업추진단 등은 영천마늘피자 개발을 위해 피자알볼로 본사를 여러 번 방문해 업무 협의를 가졌고, 지난 10월 영천와인페스타 때 ‘영천마늘피자 나눔시식회’를 열기도 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영천마늘의 알싸하고 깊은 맛을 세계인의 음식인 피자에 담았다”며 “앞으로 영천마늘을 활용한 더 많은 식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신재일 기자



‘KTX광명역~서울 목동’ 200번 일반좌석버스 운행 시작

경기 광명시는 KTX광명역에서 서울 목동으로 가는 200번 일반좌석버스 노선을 신설해 26일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200번 일반좌석버스는 KTX광명역 5번 출구를 출발해 이케아광명점, 철산역, 광명시청, 목동중학교를 거쳐 목동7단지 종로학원까지 운행한다.

첫차는 오전 5시, 막차는 오후 11시로 하루 5대 버스가 40회 운행하게 된다.

이번 200번 일반좌석버스 노선 개통으로 그동안 버스를 갈아타야 서울 서남부

권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일직동, 소하동, 하안동 등 광명 남쪽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시는 그동안 광명역세권 광역교통 보완 대책으로 KTX광명역과 서울 서남부권 연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날 200번 일반좌석버스 시승식에 참여한 한 시민은 “일직동에서 목동을 대중 교통으로 가려면 몇 번 갈아타고 힘들었다”며 “200번 일반좌석버스가 개통해 한 번에 갈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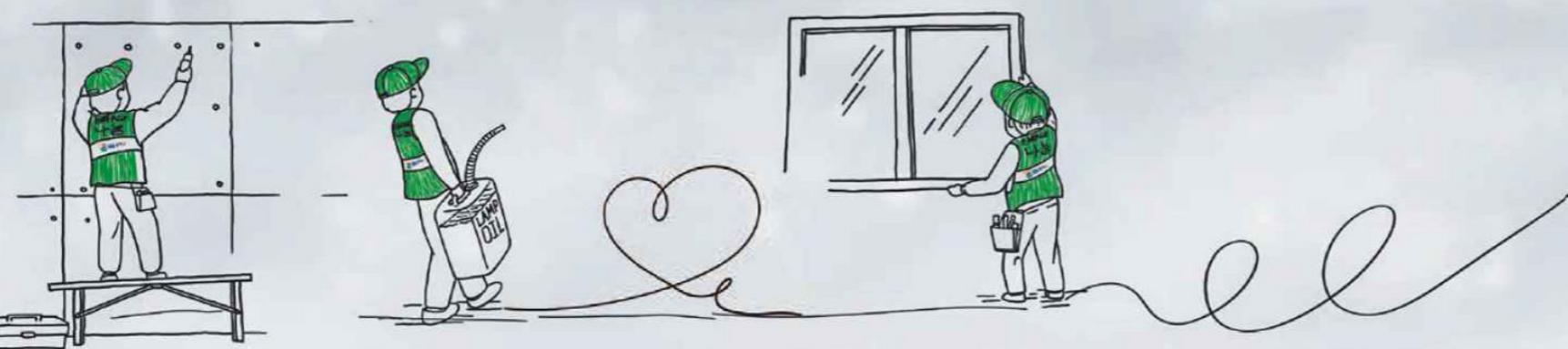
/ 박정민 기자



에너지 나눔으로 세상을 더 따뜻하게

GS칼텍스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유 지원에서부터 단열, 창호, 고효율 보일러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까지 쉼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우는 일,
GS칼텍스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I am
your
Energy

 GS 칼텍스

반환점 돈 배구…여자부 현대·흥국 양강, 남자부 우리카드 돌풍

남녀부 3위 대한항공과 GS칼텍스는 판도 변화 노려

프로배구 2023-2024 V리그 여자부는 예상대로 현대건설과 흥국생명이 선두 싸움을 벌이며 반환점을 돌았다.

반면 남자부에서는 우리카드와 삼성화재가 돌풍을 일으키며 1, 2위에 자리했다.

6라운드까지 치르는 V리그 정규리그는 25일 1~3라운드 일정을 마쳤다.

현대건설은 승점 41(13승 5패)로, 흥국생명(승점 39·14승 4패)을 승점 2차로 제치고 3라운드를 끝냈다.

현대건설과 흥국생명은 나란히 9연승을 한 번씩 달성하는 등 1~3라운드 내내 1, 2위 자리를 놓고 다했다. 양효진, 이다현을 앞세워 블로킹 득점 1위(세트당 2,400개)에 오른 현대건설과 김연경, 엘레나 브리제노비치(등록명 엘레나) 쌍포를 내세운 흥국생명의 경쟁은 V리그 여자부 1~3라운드를 뜨겁게 달궜다. 1, 2라운드 맞대결에서는 흥국생명이 현대건설에 풀세트 접전 끝에 승리했지만, 3라운드에서는 현대건설이 흥국생명을 세트 스코어 3-1로 누르며 1위 자리를 지켰다.

우리카드는 승점 39(14승 4패)로, 삼성화재(승점 34·13승 5패), 대한항공(승점



20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흥국생명과 현대건설의 경기. 흥국생명 김연경이 공격하고 있다.

34·11승 7패)의 추격을 뿌리쳤다. 3시즌 연속 통합우승을 달성한 '디펜딩 챔피언' 대한항공과의 올 시즌 3차례 맞대결에서는 모두 승리해 자신감은 더 커졌다.

올 시즌 우리카드는 주전 세터로 2004년생 현태준을 내세우는 등 '재창단 수준'으로 구성원을 확 바꿨다.

신영철 우리카드 감독은 "이번 시즌 우리 팀은 재창단 수준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애초 하위권 전력으로 분류됐지만,

아웃사이드 히터 김지한과 세터 한태준이 성장하면 상위권으로 올라설 수 있다"며 "모든 선수가 잘 따라줘 기대된다"고 했다.

현재까지 성적은 기대 이상이다. 실제 우리카드는 공격 성공률 52.60%로 이 부분 7개 구단 중 4위에 그쳤다.

하지만, 디그 세트당 10.319개(2위)의 촘촘한 수비를 펼치고, 블로킹 득점 세트당 2,478개(1위)의 탄탄한 벽을 쌓으면서

선두를 질주했다. 삼성화재는 고비마다 터진 요스바니 에르난데스(등록명 요스바니)의 강력한 서브와 부쩍 성장한 미들블로커 김준우의 활약 등으로 '명가 재건'의 꿈을 키웠다.

V리그에서 가장 많은 8개의 우승 트로피를 수집했지만, 최근 5시즌 연속 하위권에 머문 삼성화재는 2017-2018시즌 이후 6시즌 만에 '봄 배구'를 치르고자 뜨거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남녀부 1, 2위 모두 아직은 등 뒤가 따깝다. 남자부 3위로 3라운드를 마친 대한항공은 '4시즌 연속 통합우승'을 위해 4라운드부터 시동을 걸겠다는 각오다. 토미 텔리카이넨 대한항공 감독은 25일 OK 금융그룹을 세트 스코어 3-0으로 완파한 뒤 "더 강한 모습으로 남은 4~6라운드를 치르겠다"고 후반기 출사표를 올렸다.

1~3라운드 득점(514점)과 공격 성공률(45.66%) 1위를 차지한 지젤 실바(등록명 실바)를 보유한 여자부 3위 GS칼텍스(승점 34·12승 6패)도 최근 4연승 행진을 벌이며 '양강' 현대건설과 흥국생명을 압박하고 있다.

/ 최준용 기자

MLB닷컴 “샌프란시스코 팬 소원은 이정후가 개성을 발휘하는 것”



MLB 샌프란시스코 입단한 이정후 기자회견

크리스마스에도 '한국에서 온 바람의 순자' 이정후(25·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름이 MLB닷컴을 장식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훈

페이지 MLB닷컴은 25일(이하 현지시간) '메이저리그 각 구단 팬의 소망'을 선별해 게재했다.

MLB닷컴이 꼽은 샌프란시스코 팬들

의 바람은 '이정후가 팀에 개성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 매체는 "이정후가 스타인지 아닌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색이 뚜렷하지 않았던 샌프란시스코가 바라던 선수인 건 확실하다. 이정후는 샌프란시스코가 원하는 경기력과 개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MLB닷컴이 말한 이정후의 개성과 경기력은 파르한 자이더 샌프란시스코 사장의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이더 사장은 지난 15일 열린 이정후 입단식에서 "공격적인 면에서 우리 팀은 콘택트 능력을 갖춘 선수가 필요했다. 이는 최근 메이저리그가 추구하는 야구이기도 하다"며 "이번 비시즌에

우리가 가장 영입하고 싶어 한 선수가 이정후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정후에게는 상대 투수의 구종을 빨리 알아채는 능력이 있다"며 "이런 특별한 기술은 분명히 MLB에서도 통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정후의 콘택트 능력에 주목했고, 역대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 한국인 최고이자, 아시아 야수 최대 규모인 6년 1억1천300만 달러(약 1천469억원)의 대형 계약을 했다.

이번 비시즌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선수도 이정후다.

계약을 마친 샌프란시스코 선수 중 이정후는 2024년 연봉 순위 9위다. 하지만, 6년 동안 받는 총액의 평균 금액으로 순위를 나열하면 가장 위에 있다.

/ 김강우 기자

우즈와 안병훈의 공통점 '한방'에 세계랭킹 대폭 상승 주인공



세계랭킹 892위에 올라가 있다.

안병훈은 지난 8월 월드 챔피언십 준우승으로 79위에서 57위로 뛰어올랐다.

앞서 안병훈은 7월 스코틀랜드 오픈 3위로 131위였던 세계랭킹을 85위로 끌어올린 바 있다.

올해 짧은 기간에 세계랭킹을 가파르게 끌어 올린 선수로는 루이 우스트하즌(남아공)을 빼놓을 수 없다.

LIV 골프로 아직하면서 세계랭킹이 441위까지 내려갔던 우스트하즌은 이달 들어 DP 월드투어 알프레드 던힐 챔피언십과 모리셔스 오픈에서 2연승하면서 133위까지 상승했다.

역시 LIV 골프로 옮긴 뒤 세계랭킹 하락을 속절없이 지켜봐 했던 호아킨 니만(칠레)도 DP 월드투어 호주오픈 우승한 번으로 82위에서 59위로 올랐다.

미국프로골프(PGA)투어 페덱스 세인트 주드 챔피언십 우승으로 79위에서 57위로 올라온 루커스 글로버(미국)도 한방에 힘입어 세계랭킹이 쑥 오른 선수에 됐다.

/ 조영민 기자

'조훈현 국수 배출' 영암군, 바둑팀 창단



전남 영암군이 바둑팀 '마한의 심장 영암' 빌대식을 열고 바둑리그 참가를 선언했다. 바둑팀 창단은 조훈현 국수를 배출한 바둑 본향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군 바둑팀은 오는 28일부터 진행되는 'KB국민은행 바둑리그'에 지역 이름으로 처음 출전한다. 마한의 심장 영암 팀은 한해원 감독이 지휘한다.

한 감독은 '2021-2022 KB 바둑리그 EDGC' 서울 'YOU WHO' 팀을 이끈 경험 있다. 선수는 1지명 안성준 9단, 2지명

/ 박현미 기자

꿈이 깃든 기술력에 기술보증기금이 희망을 D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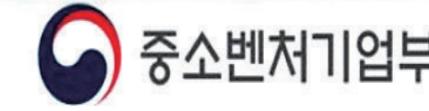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개방형 기술혁신 전담 기관



기업에서 꼭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고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중소벤처 개방형 기술혁신의 모든 과정을 기보가 지원합니다.
스마트 테크브릿지(<http://tb.kibo.or.kr>)

기술기업의 start up부터 scale up까지 함께하는 혁신성장플랫폼

기술혁신형 기업에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를 중점지원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이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금융 전문지원기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노량'·'서울의 봄' 성탄절 연휴 극장가 쌍끌이 흥행

'노량' 160만명·'서울의 봄' 116만명

이순신 장군 최후의 전투를 그린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이하 '노량')와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성탄절 연휴 극장가에서 쌍끌이 흥행을 이어갔다.

26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김한민 감독의 '노량'은 지난 23~25일 사흘간 160만2천여 명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사흘 평균 매출액 점유율은 42.3%였다.

지난 20일 개봉한 이 영화는 개봉 4일째인 23일 100만 관객을, 6일째인 25일 200만 관객을 각각 돌파했다. 누적 관객 수는 223만여 명이다.

김성수 감독의 '서울의 봄'은 같은 기간 116만9천여 명을 모아 2위였다. 평균 매출액 점유율은 30.8%다.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서울의 봄' 포스터

제치고 올해 최고 흥행작에 등극했다.

'서울의 봄' 누적 관객 수는 1천73만여 명으로, 이번 주 안에 1천100만명 달성이 임박해졌다.

DC 스튜디오 신작 '아쿠아맨과 로스트 킹덤'(33만2천여 명, 9.1%), 애니메이션 '신치원! 짱구는 못말려 더 무비 초능력 대결전 ~날아라 수제김밥~'(31만3천여 명, 7.9%), '트롤: 밴드 투게더'(18만7천여 명, 4.5%) 등 해외 신작들은 두 한국 작품에 밀려 큰 힘을 쓰지 못했다.

'노량'과 '서울의 봄'은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이어지는 새해 연휴에도 극장가를 양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오전 8시 기준 '노량'의 예매율은 34.1%(예매 관객 수 10만1천여 명)로 1위에 올라 있다. '서울의 봄'은 32.6%(9만7천여 명)로 그 뒤를 바짝 추격 중이다.

/ 임은희 기자

지드래곤, 마야 퇴치 재단

'저스피스' 설립에 3억원 기부

의료보건·복지 등 전문가로
자문위 구성 중

가수 지드래곤이 마야 퇴치 등을
펼칠 재단 '저스피스'(JUSPEACE)
설립을 위해 출연금 3억원을 기부
한다고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이
25일 밝혔다.

'저스피스'는 '정의'(Justice)와 '평화'(Peace)의 합성어다. 재단의 슬로건은 '평화를 수호하자 & 사랑의 정의 / 정의의 사랑'으로 정해졌다.

지드래곤은 앞서 지난 21일 손편지를 통해 "한 해 평균 마야사범이 2만명에 달한다는 사실과 청소년 마야류 사범이 무섭게 증가했지만 이들 중 치료 기관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이 500명도 되지 않는다는 가슴 아픈 사실을 알게 됐다"며 재단 설립을 약속한 바 있다.

지드래곤은 이후 마야 퇴치 캠페인을 통해 마야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마야 퇴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지드래곤은 이후 재단 자문위원회에 참여할 의료보건, 공공정책·행정, 복지·문화 분야의 전문가를 추천받아



가수 지드래곤

선별 중이다.

그는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공익 활동의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최용호 갤럭시코퍼레이션 대표는 "재단은 음악을 통해 편견 없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권지용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설립돼 이에 맞는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며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마야 퇴치 및 중독 청소년 치료를 위한 활동"이라고 전했다.

/ 최혜원 기자

'고려거란전쟁' 김혁, 거란 기만한 최수종과 아찔한 대면 포착! 분노 폭발

거란의 황제 야율옹서가 자신을 기만한 강감찬을 향해 부월을 껴내든다.

24일 방송된 공영방송 50주년 특별 기획 KBS 2TV 대하드라마 '고려거란전쟁'(극본 이정우/ 연출 전우성, 김한솔/ 제작 몬스터 유니온, 비브스튜디오스) 13회에서는 강감찬(최수종 분)이 거란군 종지휘관 소배암(김준 배 분)과 접선하던 중 거란의 진중으로 끌려가는 절체절명 위기에 봉착한다.

앞서 황성에 도착한 야율옹서(김혁 분)는 현종(김동준 분)이 봉진을 떠났다는 사실과 함께 하룻밤 만에 과주성이 고려군에 의해 함락됐다는 전령을 받고 극대노했다.

거란의 관리와 소배암은 당장 회군해 서경을 공략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율분노(이상홍 분)는 고려를 완전히 굴복시키기 전에는 절대로 철군할 수 없다고 맞서는 등 내부 분열까지 일어났다.

오늘(24일) 공개된 스틸에는 온몸을 포승 줄에 묶인 채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참담한 표정을 지어 보이고 있는 강감찬의 모습이 담겨 있어 참담함을 더한다.

게다가 호위 군사들과 함께 등장한 야율옹서는 차가운 얼굴로 강감찬을 내려다보고, 끊어앉아 있는 강감찬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내뿜으며 살벌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특히 소배암과 접선한 강감찬이 야율분노로부터 내통 의심을 받아 또 한 번 절체절명



KBS 2TV 대하드라마 '고려거란전쟁'

위기에 처한다. 과연 강감찬이 무사히 고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앞으로 펼쳐질 전개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진다.

'고려거란전쟁' 제작진은 "13회에서는 거란을 철군시키기 위해 양규와 작전을 도모한 강감찬이 소배암과 접선하던 중 실패 위기에 봉착한다.

거짓 친조 사건 이후 야율옹서와 다시 만나게 된 강감찬이 이번에도 지략을 발휘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 달라"면서 "지난 회에 이어 사극 대가 최수종의 전가를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 노승만 기자



SBS 가요대전 사회 맡은 카인유진-연준

아쉬움 남긴 SBS 가요대전 위조티켓 피해·텐 안전사고

SBS "위조티켓, 경찰에 수사
의뢰"...전광판·음향도 문제 일으켜

지난 25일 열린 SBS의 연말 가요 축제 '가요대전'이 위조 티켓과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가요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26일 방송가에 따르면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날 오후 열린 '가요대전'에 입장하려다가 보유한 티켓이 위조된 가짜라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입장하지 못했다는 후기가 게재됐다.

이에 대해 SBS 관계자는 "공연 당일 현장에서 위조 티켓과 관련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SBS 가요대전은 매년 연말 열리는 가요 행사로, 올해는 24일 오후 5시 1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렸다.

특히 올해는 키, 안유진, 연준 등 인기

스타가 진행을 맡고 26개 아티스트 팀이 출연해 기대를 모았다. 작년까지 고척에서 진행한 것과는 달리 인스파이어 아래 나로 장소를 옮긴 만큼 무대와 중계 수준이 얼마나 향상될지도 관심사였다.

그러나 위조 티켓 문제와 함께 몇몇 사고가 발생하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그룹 NCT의 멤버 텐은 무대 가장자리에서 가운데로 이동하던 중 리프트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 현장에 있던 팬들에게 목격됐고, 이에 텐은 이를 날 새벽 팬과 소통하는 플랫폼에 '저는 팬찮다. 걱정하지 말라'며 주위를 안심시켰다.

이 밖에도 그룹 있지(ITZY)가 공연하던 중 전광판에 컴퓨터(PC) 운영체제에서 우클릭 때 나타나는 메뉴가 표시된 것이 팬들의 눈에 포착됐고, 제로베이스원 공연 중 특정 부분만 반복 재생되는 음향 사고가 나는 등 연출진의 관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 강성희 기자

검찰연합일보

www.unionilbo.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175

편집인 최두한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서난영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영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롯데칠성음료



청량한 이 순간,
칠성사이다로부터

Chilsung
Cider



NEW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지금이 제철이다



IBK기업은행
IRP

올해가 가기 전! 연말정산



꿀맛 환급을 놓치지 마세요!



비대면 개설 시 수수료 평생 0원

i-ONE 뱅크, 인터넷 뱅킹으로 신규가입 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무료 *펀드 보수 등 별도 발생



최대 148만 5천원 세액공제

연간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6.5%,
148만 5천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고금리 퇴직연금 ELB 출시!

원리금 보장, 중도해지 시에도
원금손실 없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의필 제23-04205호(2023.11.23.~2023.12.3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5462호(2023.11.17) [유효기간 2023.12.31]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 ※ 개인형IRP는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해 다른 보호 상품과는 별도로 5천만원까지(운용회사별 합산) 예금자보호 ※ 개인형IRP에서 운용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상품 아님 ※ 투자전 설명 청취 및 상품설명서·약관 필독 ※ 원금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 개인형IRP 연금외 수령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부과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 향후 변동 가능 <퇴직연금 파생결합사채(ELB) 유의사항> ※ 퇴직연금 파생결합사채(ELB)는 원금지급형으로, 투자 성향은 저위험(안정추구형)으로 분류 ※ 퇴직연금 파생결합사채(ELB)는 개인형IRP 계좌에서 보유 중인 현금성 자산으로만 예약매수 가능 ※ 예금자보호법상 보호상품 아님 ※ 자산가격 변동, 발행회사신용위험, 조기종결 및 중도상환 위험, 세제 및 법률상 위험 등에 따라 원금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 발행사 IBK 투자증권(AA, 2023.8.29, NICE 신용평가)의 신용위험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 ※ 청약의 권유는(예비·간이) 투자설명서에 따름 ※ 수익률은 조건 충족 시 최대 수익률에 불과, 수익률 달성 비보장, 투자전 확인 ※ 투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시 원금손실 가능 ※ 원금 부분 지급이나 원금지급 상품의 경우 중도상환 시 최대 손실을 초과 가능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